

## 시드니,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조성

<http://www.betterbuildingspartnership.com.au/>

<http://www.sydneymedia.com.au/lower-emissions-from-sydneys-better-buildings/>

최근 시드니의 'Better Buildings Partnership(BBP)'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달성한 효과를 발표하였다. BBP는 2011년 시드니시와 부동산 소유주, 관리자, 조직 및 산업체 등 관련 주체가 지속가능한 건축·도시 경영을 목표로 구성한 협의체\*다. BBP는 결성된 이래 시드니를 중심으로 상업·공공 건축물의 친환경성,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.

BBP가 발표한 2017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BBP 회원들은 약 1,05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,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시드니 중심업무지구(CBD) 상업 오피스 공간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52% 감소시켰다. 이대로라면 2030년 감축 목표인 70%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도 내놓았다.

또한 BBP는 시드니를 비롯한 호주 전역, 모든 건축물에서 방출되는 폐기물 데이터의 기록화와 개선, 폐기물 회수율 80% 달성, 데이터 통찰력과 체계적인 그린 임대 프로젝트를 통한 '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(Sustainable Sydney 2030)\*\*'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.

클로버 무어(Clover Moore) 시드니 시장은 "BBP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시드니의 부동산 가치가 시드니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"면서 "앞으로도 사무실과 숙박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것이며, BBP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"라고 말하였다.



BBP의 2017년도 연차보고서

자료: <http://www.betterbuildingspartnership.com.au/resource/bbp-annual-report-2017/>

\* 주요 회원은 AMP캐피털(AMP Capital), 브룩필드(Brookfield), 차터홀(Charter Hall), 시드니시(City of Sydney), 맥서스(DEXUS), 프레이저스(Frasers Property), GPT그룹(The GPT Group), 인베스타(Investa), ISPT, 렌드리스(Lend Lease), 미르박(Mirvac), 스톡랜드(Stockland), 시드니대학교(University of Sydney), 시드니주립대학교(Sydney TAFE), 시드니공과대학교(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) 등

\*\* 'Green', 'Global', 'Connected' 3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드니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경영 전략